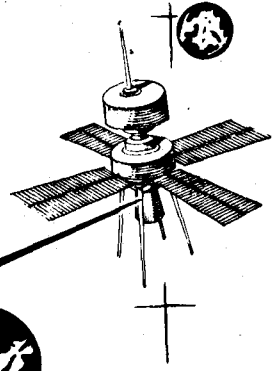


#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세계인의 먹거리 닭고기와 계란

11월17일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국내외 올림픽관  
계자 1천3백여명이 참석 서울올림픽 선수촌의 메뉴를  
확정하였다.

이들 1천3백여명이 선수촌 급식 시식평가회에서 합격  
판정을 내림으로서 확정된 것인데 사마란치 위원장도  
종류가 많아 선수촌 음식을 다 먹어볼 수는 없으나 먹  
어본 음식맛은 모두 일품이라고 칭찬하였다.

88년 9월3일부터 33일동안 올림픽 선수촌에서 연25  
만4천여명에게 무제한 자유급식하게 되는데 1일 식사값  
을 2만2천원(3식및 간식)이라고 한다.

주스 과일 곡류 야채 등 식물성 먹거리를 포함해서  
266종의 메뉴가 제공되는데 서양식을 위주로 (54%)대  
특별로 보편화된 메뉴로 식단을 짜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대표적 식품이 닭고기와 계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  
인된 점이다.

계란이야 일본과 서구인들의 아침식사에 빼놓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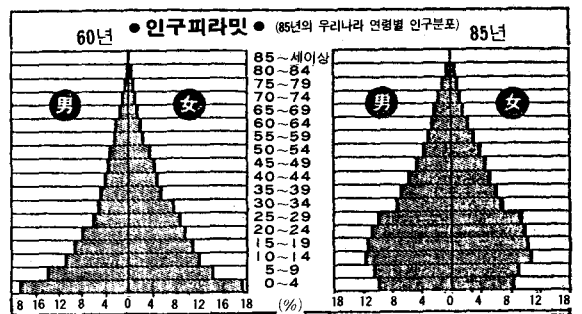
없는 필수품이지만 육류의 왕좌위치가 이제는 쇠고기에  
서 닭고기로 바뀐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33일간 올림픽 선수촌에  
서 소요될 육류별 예상량을 보면 닭고기가 월등히 많다.

종 류 별	소요예정량	비 고
쇠 고 기	53t	정육기준(2백15마리분)
돼지고기	12	
닭 고 기	64	
생 선	35	
야 채	263	

힘과(力) 미(美)를 겨루는 세계의 대표들이 닭고기를  
즐겨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구분포가 10세에서 30세까지 집중적  
으로 밀집되어 있어 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먹거리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비홍보의 대상도 당연히 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평균 가족수도 4.16명으로 60년대의 5.66명보다 크게 감소하여 핵가족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통닭 일변도의 판매에서 부분육 판매로 전환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간다.

부모자식만의 핵가족이 전체의 68.5%이며 신혼부부나 형제 등 1세대가구는 8.3%로 핵가족에 맞는 소량의 상품개발이 시급하다.

사별(死別) 이혼 등의 독신가구주가 10.6%인 1백1만 7천가구이며 홀아비 등 단독가구도 6.9%인 66만1천세대나 되어 이들을 대상으로한 서비스 식품개발 또한 필요하다. 이들은 복잡한 조리나 설거지가 필요없는 즉석 식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독신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계란 오므렛 강습회는 아침식사로 핵가족 단독 가족에 아주 적합한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도시에 인구의 40.9%가 몰려 살고 있으며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를 합하면 52.8%가 된다.

#### 지역별인구

		인구 (구성비%)
전	국	40, 420 ( 100)
서	울	9, 626 (23. 8)
경	기	4, 793 (11. 9)
전	남	3, 748 ( 9. 3)
경	북	3, 010 ( 7. 5)
경	남	3, 514 ( 8. 7)
부	산	3, 512 ( 8. 7)
충	남	3, 000 ( 7. 4)
전	북	2, 202 ( 5. 5)
강	원	1, 724 ( 4. 3)
대	구	2, 028 ( 5. 0)
충	북	1, 390 ( 3. 4)
인	천	1, 385 ( 3. 4)
제	주	488 ( 1. 2)

인구의 도시 집중은 외식과 가공식품의 소비증가를 가져와 닭고기를 주원료로한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의 발전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식비의 46%를 가공식품 구입에, 16%는 외식



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소비형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세끼의 식사중 밥상차림이 아닐때 주로 먹는 음식이 국수(68%)빵(24%)장국밥류(6%)떡 피자 햄버거(2%)의 순이나 92%에 달하는 에너지 위주 식사인 국수와 빵에 닭고기를 가미하도록 하면 국민보전에도 크게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닭고기 가격이 너무 장기간 폭락하니 닭고기 소비를 증가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함을 느낀다.

새해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다.

## 삼저와 삼고가 병행하는가?

최근 신문소설 “떨어지는 것은 모두 날개가 있다”가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날개가 있다는 말은 높이 올라간다는 말인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때 진통도 크다.

축산업계에도 삼저(三低) 현상이 찾아왔다. 닭고기 값이 떨어지고 계란값이 떨어지고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는 것인데 돼지고기 값이 그간 날개를 달고 높이 올라가보기라도 했지만 계란과 닭고기는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한채 땅속으로 까지 떨어지는 느낌이다.

삼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신문에서 그렇게 떠든 삼저호황도 삼저호황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 수입할 것이라고는 농축산물밖에 없어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이어져 삼저호황의 혜택이 아닌 그늘지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달려가다가 떨어지니 배합사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으나 국제곡물가격하락 폭과 환율인상폭 등 생산자의 기대만큼 인하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 대신 축산물 수입업자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삼저시대가 장기화 되리라는 예측과 함께 삼고(三高)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 삼저와 삼고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새해를 희망과 기쁨으로 맞기는 어색하게 되었다.

삼저에 이은 삼고란 첫째, 국제사료곡물을 비롯한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이다.

년초 80\$ 선이던 옥수수 가격이 이미 100\$ 선을 넘어 구매하고 있으며 대두박 등 박류값도 양등하고 있다. 국산 옥수수의 수매가격도 14% 인상되어 배합사료 가격이 새해에는 불안하기만 하다.

둘째, 선거후 임금이 재조정되는 년초에 또 한번의 노동분규를 예측하고 있어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제도 작업환경이 불리하여 농장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축산업계의 장기간 불황과 사료가격의 상승 및 선거후의 농축산물 수입으로 부도율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육계농가가 타의에 의해서 많이 정리되었고 최근에는 동물약품 판매업소까지 파급되고 있는데 새해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름든 삼저이든 삼고이든 우리가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정신적 자세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회피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어려움만 더할 뿐이다. **양지**